

의료의 최첨단시대, 건강관리용 IC카드 개발

최근 환자의 의무기록을 컴퓨터칩으로 내장한 첨단 건강관리카드가 개발돼 의료계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메덱스클리닉은 2년여에 걸친 전산팀의 연구끝에 올초부터 환자 자신의 과거 질병치료 경력 및 건강진단 등의 내용이 수록된 첨단화된 건강관리카드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 실용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분야에서 선진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관리카드시대 개막

메덱스 I.C.(Integrated Circuit:직접회로)카드로 명명된 건강관리카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와 크기나 두께가 똑같으나 일반 마그네틱카드와 달리 카드 왼쪽 부분에 1.2cm×1cm인 초소형 컴퓨터 칩이 내장돼있다.

바로 이곳이 개인의 중요한 의무기록이 보관되는 급소인 셈. 이 컴퓨터칩에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임시기억장치·주기억장치 같은 컴퓨터 기본요소가 갖춰져있어 작게는

원고지 몇장에서 크게는 책한권 분량의 정보까지도 수록이 가능하다고.

운용방법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카드를 IC 판독기에 넣어 자신만이 알고있는 내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작동시키면 일반 컴퓨터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용 IC카드에 입력될 내용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혈액형, 과민반응, 과거병력, 예방접종 상태, 최초의 검사결과, 투약상황 등 의사가 진료때 알아야될 기본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IC판독기에 의해 출력된 자료는 기존접수, 등록절차는 물론 의사의 문진 인터뷰나 별도 서류작성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므로 직접 현장에서 곧바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진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을 알아보는 의사의 문진 인터뷰나 청진기로 간단히 검사하는 이학적 검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케된 것이다.

고질적관행 개선위한 돌파구

사실 현재 의료계는 폭증하는 환자수에 비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태부족한 실정. 자연히 국내의 의료수준은 3시간대기에 고작 3분진료라는 말이 공공연해질 정도의 파행이 계속돼왔었다.

이번에 실용화된 건강진단용 IC카드를 이러한 의료계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로써 크게 환영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강진단용 IC카드를 개발 보급한 메덱스클리닉 박유근이사장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시설이라도 정확한 문진 기록, 이학적 검사기록, 실험실 및 방사선검사 결과기록, 의무일지등이 적재적소에서 잘 이용이 될 수 없으면 최선을 다한 진료가 나올 수 없다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구미 각국에서는 일찍이 의무기록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그중 중요한 부분을 컴퓨터칩이 내장돼 있는 IC 카드에도 수록하여 타의료기관 이용시나 응급상황 발생시 진료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인 의무기록 관리는 한 개인이 한 군데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에 한번씩은 정리하여 그 자료를 자신의 다음번 진료에 이용할 수 있게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료관리 시스템의 첨단화 추구할 때

현재 메덱스 IC카드와 같이 IC칩이 달린 플라스틱 카드는 국내생산이 어려운 상태다. 따



메덱스클리닉에서 국내최초로 개발한 건강관리용 IC카드

라서 프랑스 전자회사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데 한장당 원가가 1만원이 넘는다고. 이에반해 카드유효기간은 10년이고 사용횟수는 1만 번에 육박한다.

이제 국내의 의료관리시스템도 기존의 수동적이고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해 보다 첨단화되고 실용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메덱스클리닉의 박유근이사장은 올해안에 전국 1천여개의 병·의원에 건강관리용 IC카드의 소프트웨어를 보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병·의원에 건강관리용 IC카드의 소프트웨어가 구비돼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막상 아무리 첨단장비가 있다해도 효율성있게 이용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장치가 모처럼의 획기적인 개발을 더욱 뜻있게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